







작가의 말

처음으로 그림책을 만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추억도 생각났고 꿈도 꾸었습니다.
많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림책이 나오면 사랑하는 아내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행복한 날들 (그림책 날다 17)

발행일 2025. 11.
발행처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
기획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 독서문화과·꿈땅도서관
글·그림 김영길
지도작가 박선아

[비매품]

- * 이 책은 2025년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의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꿈땅도서관 헨인헌 독서동아리 '그림책이 좋아' 활동 결과물로 제작된 그림책입니다.
- *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 * 이 책은 전자책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ISBN 979-11-94496670(PDF 전자책)
ISBN 979-11-94496502(세트)



전자책 바로 읽기

그림책 날다 17

행복한 날들

글·그림 김영길



신트리도서관 ★ 꿈땅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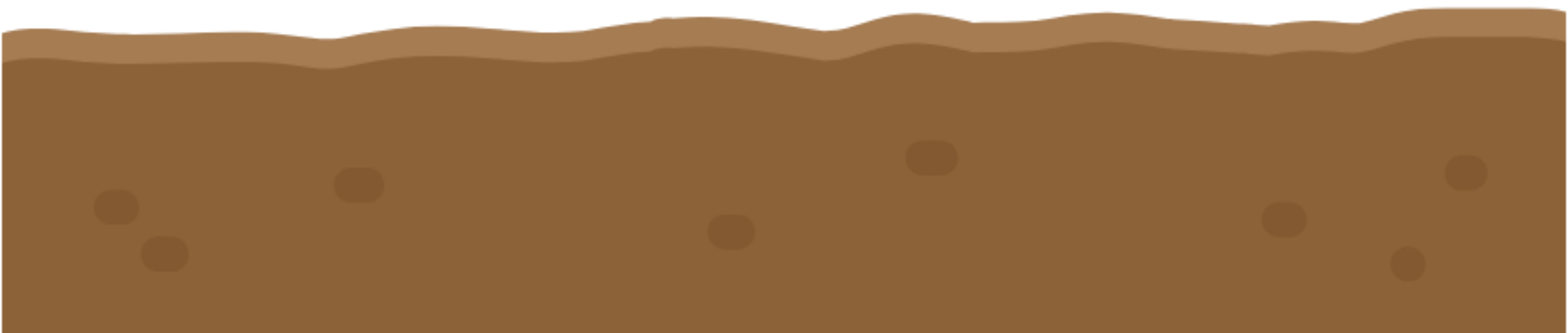
김영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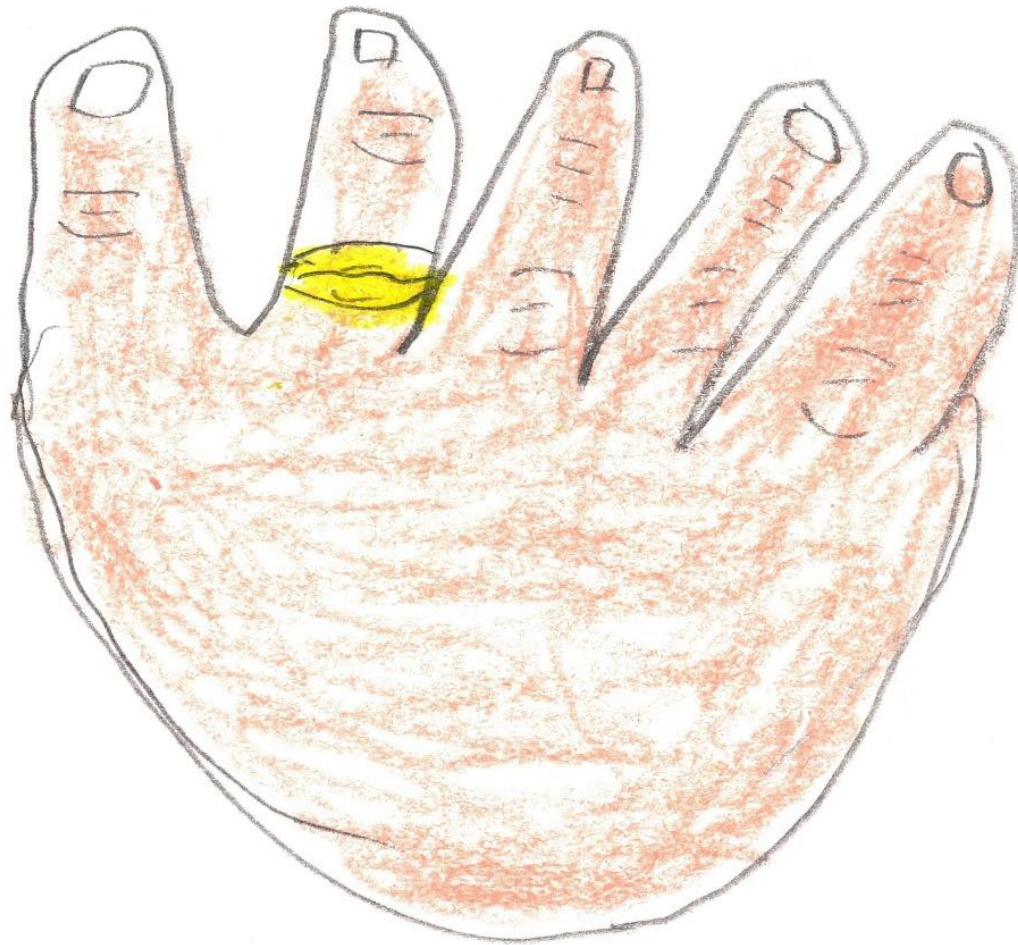
저는 소띠예요.
3월 1일에 태어났어요.

좋은 사람, 남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기억해주세요.



봄에 주인을 도와서 밭을 갈아 주고
열심히 일하는 소가 좋아요.





3-1 김경민

나의 매력포인트는 손이에요.

손은 밥도 하고
흐리도 하고
악기도 연주해요.

별별 것을 다 하지요.

7/24

E-4



저는 활발한 편이에요.

친구들과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들어요.
오리를 해서 같이 먹기도 해요.

함께 어울리는 것이 즐거워요.



제 아내 용순이를 사랑합니다.

용순이가 아파서 속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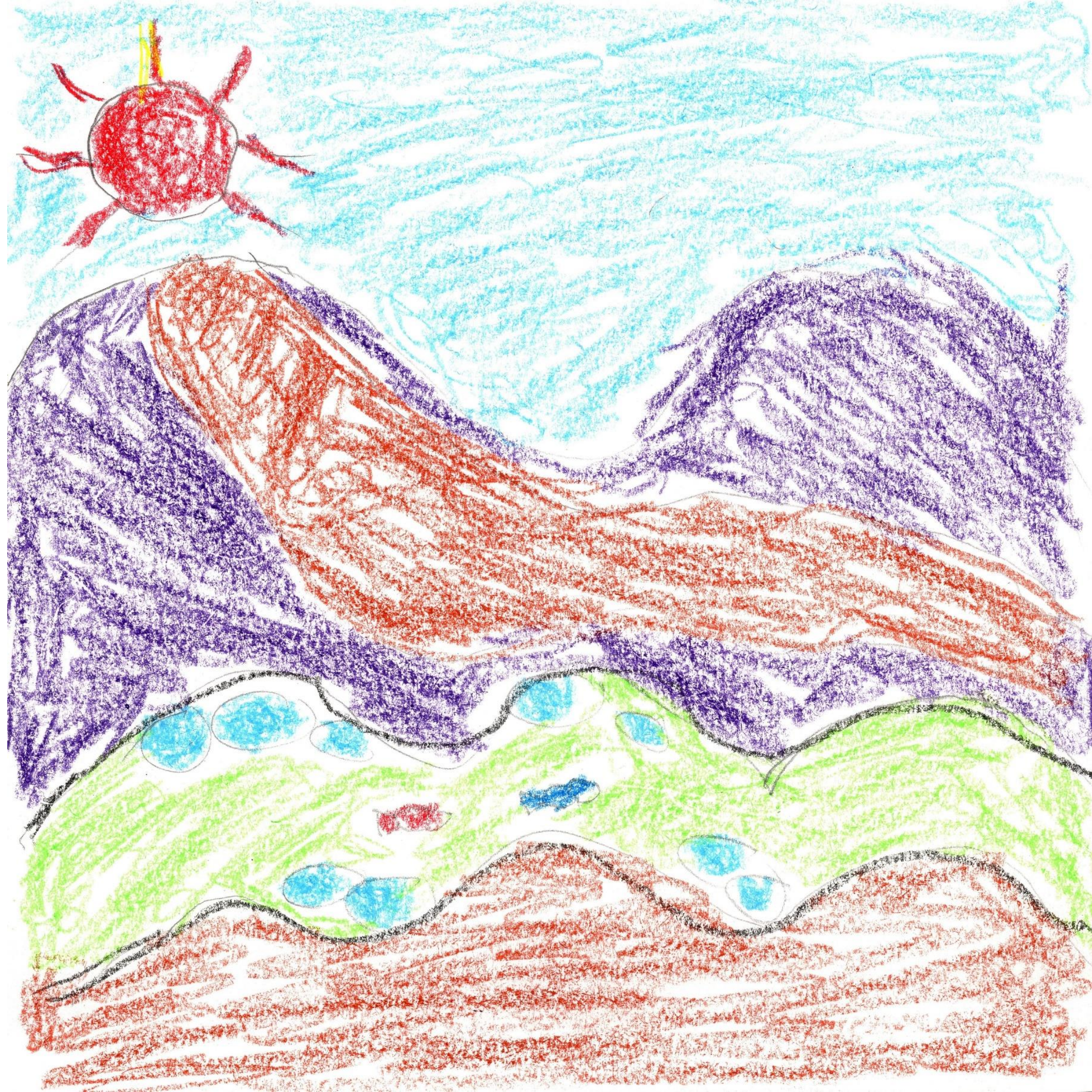
용순이가 안 아프고 건강하면 좋겠어요.



Z Z Z 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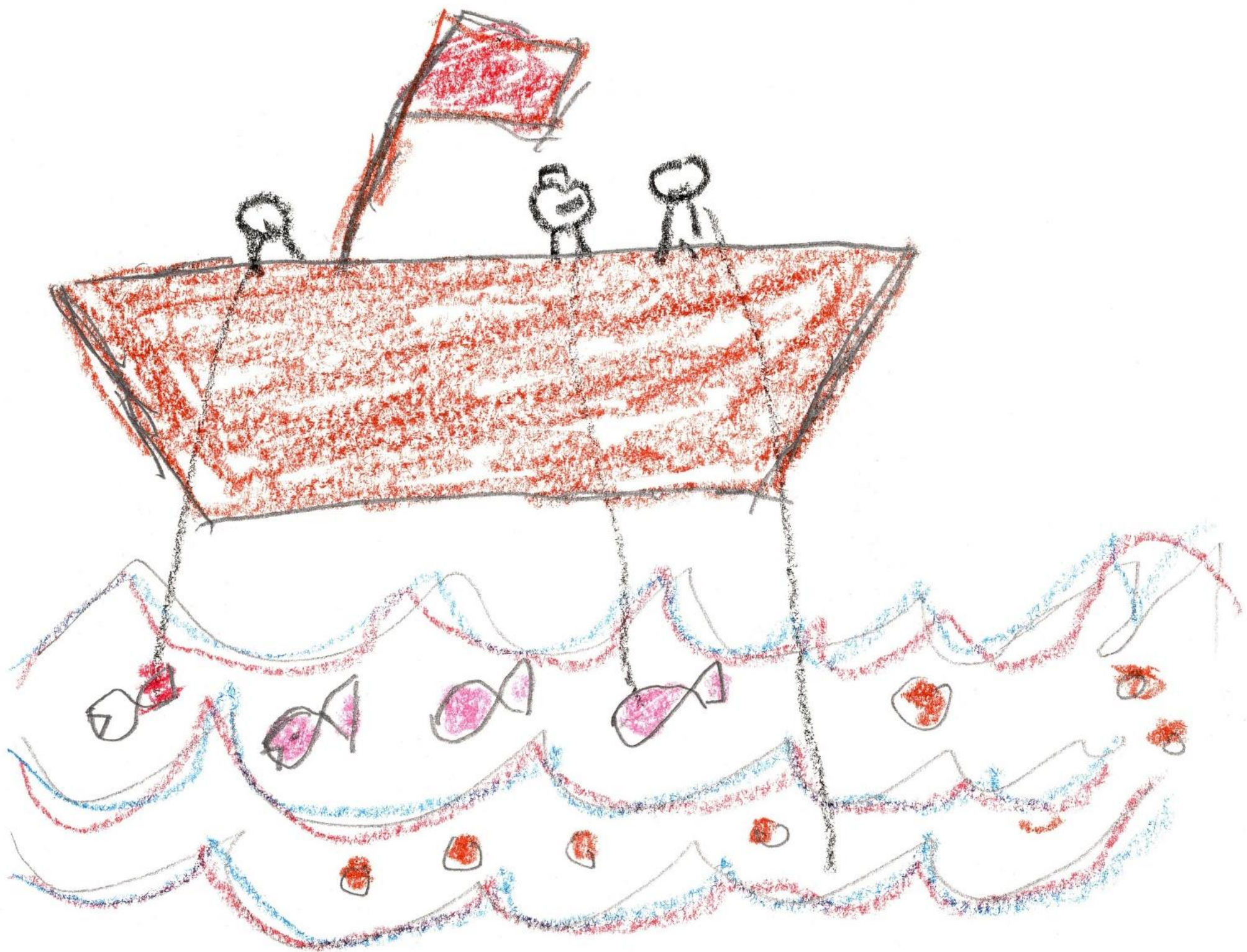
내가 제일 행복할 때는
일을 마치고 잠을 잘 때예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이지요.



산에 있는 계곡에 가서
맛있는 과일도 먹고 시원하게 보내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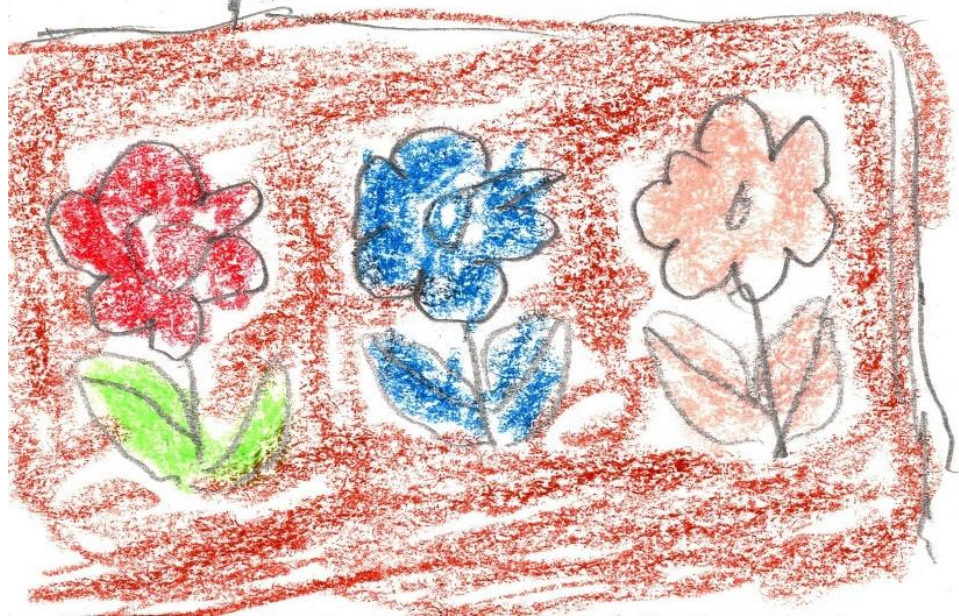
친구들과 수영도 하고 고기도 잡고
마음껏 놀고 싶어요.



배를 타고 고기 잡는 어부가 되고 싶어요.

바다가 좋아요.
출렁출렁 파도가 좋아요.





내가 태어나고 자란 시골 집에서
용순씨랑 꽃도 키우고 농사도 지으며
살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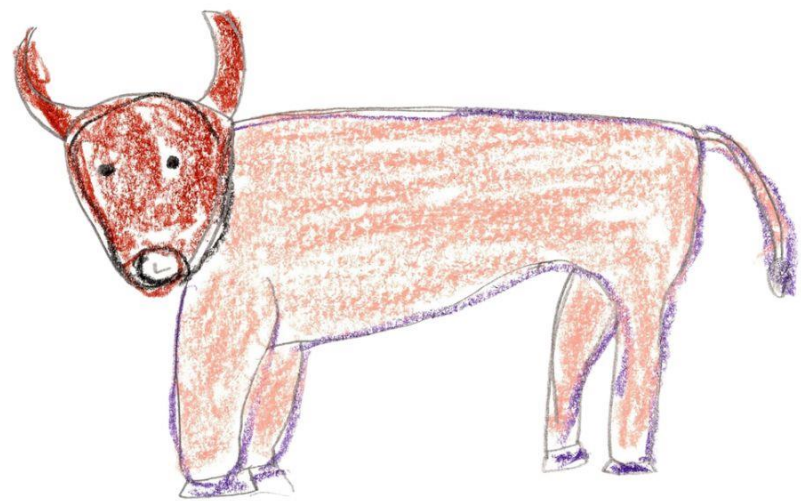
꼭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체력을 길러야 해요.
건강이 최고예요.

 김영길은 할 수 있다!







인천은 **읽** **견** **쓰** 한다 <=

read look write



전자책 읽기